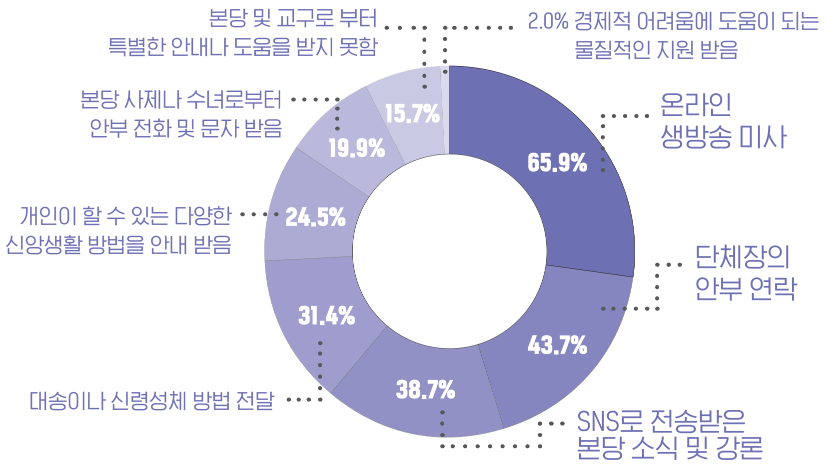
공동체 미사
성체성사
일상생활에서의 신앙실천

코로나19 이후 신앙생활에 생겨난 변화에 대한 5점 척도의 질문을 살펴보면,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있어 공동체 미사와 성체성사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신앙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당의 교우들과의 모임, 친교에 대한 갈증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교회의 가르침이나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많은 신자들이 코로나19 이후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음에도 함께 기도하거나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많이 늘지 않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설문결과 ❷

본당과 교구로부터 받은 도움은? (복수응답)



설문결과 ❸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본당이나 교구에 바라는 점

주관식 의견
7,542개

❶ 열심한 신자들뿐 아니라 그렇지 못한 신자들에게도 **본당 소식이나 신앙 관련 콘텐츠가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

❷ 전체적인 사목 방향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 그리고 디지털 취약 계층이라 할 수 있는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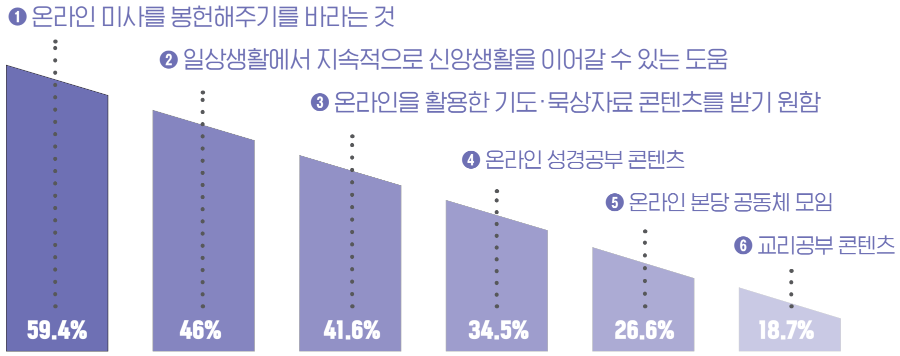
❸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신자 스스로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기도와 묵상 콘텐츠**뿐만 아니라 **신자 신앙생활 지침서를 마련**

* 특이사항: 많은 신자들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온라인 미사보다는 온라인으로 할지라도 본당 공동체원들과 본당 사제가 함께 드리는 미사에 대한 욕구가 많았음

또한 방역 지침을 충실히 준수하는 가운데 미사 전례를 더 풍요롭게 봉헌하거나 공동의 고해성사 같은 방식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는 의견 있음

설문결과 ❹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미사와 모임이 중단될 경우, 받길 원하는 신앙적 도움은?



* 온라인 신앙학교 프로그램(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성경이나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습 과정)의 필요성과 참여 여부에 관한 질문은 응답자 가운데 70~80%의 신자들이 필요하고 또 마련되면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난 점은 힘든 상황에서도 교우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류하려는 사제와 수도자들, 본당 단체장들에 대해 깊은 감동을 느꼈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실망과 박탈감마저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제의 존재 자체가 신자들을 기르는 영적인 양식으로, 즉 살아있는 성체성사가 되어 신자들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기존의 방식으로만 사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변화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방식과 표현을 통해 진정 새로운 복음화를 실현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번 설문을 통해 교구 신자들 모두 교회와 함께, 교구와 하나되어 이 어려움을 이겨내길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견을 내주신 많은 신자분들 모두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길 빕니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긴급히 요청되는 사안들을 식별하여 사목적 대안들을 마련하는 서울대교구가 되겠습니다.